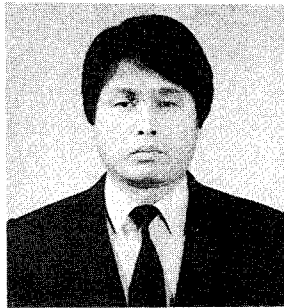




축산경영자가 알고 있어야 할 몇가지 경제지식



김 정 주
건대 농경과 교수

(지난호에 이어서)

축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경험많은 축산경영자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초기에는 기술자 되기에 열심이었고 어느정도수준의 기술자가 되고 난뒤에는 경영자가 되기에 열심이고 그리고나면 정책가가 되려고 노력함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결국 “기술자→경영자→정책자”의 과정을 거쳐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예를 우리는 자주본다. 독자들께서는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파악하고 계속 정진함이 필요할것이다. 그런데 이처

럼 경험많은 축산경영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이 미숙함을 발견할때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이해하기에 까다로운 경영·경제 상식을 중심으로 체계에 따르지 않고 논의해 보겠다.

1. 소득과 조수익

흔히 “귀하의 년간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그런데 소득이란 과연 무

엇을 말하는가? 소득은 일정한 기간에 벌어들인 총 수익(또는 총수입)중에서 그것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 즉 총경비를 차감하고 난 잔액을 의미한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축산업으로부터 얻은 총 생산물에서 단가를 곱한 결과가 조수익이므로 이 조수익에서 생산을 위해서 소비한 경영비 즉 실제로 지불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과 고정자산(건물, 기계, 시설 등)의 감가상각비를 합한 비용을 차감한 것이 바로 소득이다. 따라서 조수익이란 자가(自家) 소비된 부분까지를 포함한 생산물 수익의 총액이요, 경영비에는 비용의 합계중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즉 자기토지, 자기자본, 자기노동력에 대한 사용대가는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은 상태의 비용을 의미한다. 결국 소득은 경영자가 제공한 토지, 자본, 노동력 그리고 경영기술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낙농의 경우 연간 우유 판매대전과 송아지 판매대전(만일 송아지를 판매하지 않고 육성용으로 키우고 있다면 그 환산금액)에 구비의 판매 또는 평가액을 합한 것이 낙농의 조수익이 되고 이러한 조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영비는 사료비, 고용노동비, 수도광열비 등 현금 또는 현물로 지출되는 비용에다 축사, 착유기, 젖소,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합한 것이 되며 결국 “소득=조수익-경영비”라는 등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깊고 넘어갈 일은 소득율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총수익에 대한 소득의 비율을 말한 것으로 “소득율=소득/조수익×100”이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보통 낙농의 소득율은 약 40%가 되어 벌어들이는 총수익중에서 60%는 경영비에 해당됨을 뜻한다. 그러나 이윤율이나 마진율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2. 생산비와 경영비

경영비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한 비용에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생산비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불한 모든

비용을 물론 비용으로 지불하지 않았어도 지불한 것이나 다름없는 비용까지를 포함한 비용의 총합계이다. 즉 경영비에다가 경영자 자신이 제공한 자기소유 토지, 노동력 및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까지를 비용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비용의 총합인 것이다. 낙농의 예를 들면 우유 생산비는 우유생산에 필요한 경영비(물재비+고정자산 감각상각비) 이외에 우유생산에 제공된 자기토지 및 자본에 대한 이자와 자기노동력을 노임으로 환산한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자 자신이 제공한 생산요소의 평가방법이다. 사료, 고용노동, 임차료, 차입금 이자등과 같이 시장가격이 있거나 사전에 계약된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별 문제는 없겠으나 자기소유 토지나 자본 및 자기노동력의 평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토지, 자본, 노동이라도 그 용도에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토지라도 어떤 토지는 낙농용 초지 이외에는 쓸모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토지는 이웃 농가에 빌려주어 임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은행에 예금할 재주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증권투자, 사채놀이 등으로 은행예금이자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같은 노동력이라도 낙농업이 아니고서는 별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고 낙농업 이외에도 회사에 취직할 수도, 공무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농에 종사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같은 자기소유 토지, 자본, 노동력이라도 그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일이 모든 경우를 적용해서 서로 다르게 비용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생산요소를 사용한 경우라도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독자들은 농산물의 생산비를 계산함에 있어 계산하는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추곡 수매가를 놓고 서로다는 인상율을 주장하는 일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가 계산을 틀리게 해서가 아니고 이처럼 자기소유 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부터 서로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란 어떤 재화를 하나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그 재화를 차선의 어떤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희생된(기회를 놓쳐버린) 편익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얼핏 듣기에 상당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말한 자기소유 생산요소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자기소유 토지를 낙농용 초지로 사용하는데 대한 비용은 이 토지를 이웃 농가에게 빌려주어 얻을수도 있는 임대수입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한 낙농가가 회사에 취직하여 월 10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농업을 하고 있다면 이 낙농가의 노동력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 100만원이 된다. 왜냐하면 낙농업을 함으로서 회사에 취직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또 한 낙농가는 낙농업 이외에 별 재주가 없어서 낙농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별 일할곳이 없다면 이 낙농가 노동력의 기회비용은 0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가소유 생산요소는 기회비용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비율(토지 평가액의 5%, 자본액의

10%)을 적용하거나 자가노동력의 경우 그 지역의 평균노임을 자가노동력에 대한 비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경영자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기회비용을 이해하였다면 경영자의 일상계획이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알게 될것이다. 예를 들면 농민교육에 참여한 낙농업자가 농민교육을 받는데 드는 실질비용으로는 차비, 식대, 교재대, 등이 있고 기회비용으로는 경영자가 교육에 참여 함으로서 다른일을 못하게 되어 입게 될 수입의 감소를 환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사람에게 따라서 교육비용중 기회비용은 천차만별인 것이다. 결국 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에게 따라 비용은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이다. 경영자는 언제나 머리속에 이 기회비용 개념이 밝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어느 경영자나 이러한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따름일것이다.

4. 수확체감 현상

농업생산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불리한 이유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2kg 사료를 먹이면 1kg의 우유가 생산되고 20kg을 먹이면 10kg의 우유가 생산된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200kg을 먹여서 100kg의 우유가 생산된다면 낙농도 꽤 재미난 사업이 될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생산요소의 투입에 비례해서 생산물이 증가 생산되지 않고 생산요소 투입 수준이 어느 단계를 넘으면 투입에 따른 산출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여 급기야는 아무리 사료를 더 먹여도 우유는 증가 생산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수확체감의 현상이다. 이러한 수확체감의 현상의 예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비료를 투입하면 벼가 증가 생산될 수 있으나 어느 단계를 벗어나면 아무리 비료를 증가 투입해도 벼의 증수는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장거리 달리기를 할때 주자의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이야기는 약간 다르지만 더운 여름날 땀흘려 일한후 마시는 한잔의 맥주 맛과 연거푸 맥주를 10잔



마신 경우의 맥주맛은 결코 같을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살아있는 식물, 동물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투입의 효과는 점차 감소됨을 알수 있다. 그런데 경종농업이나 축산업은 그 대상이 살아있는 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되고 따라서 다른 부문에 비하여 불리한 것이다. 그렇다고 공업생산에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아니다. 공업생산에서도 기계가 하는일은 몰라도 사람이 하는일은 반드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수확체감과 대조되는 말로서 수확체증이 있다.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한 생산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산출량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으로서 이렇게 되면 생산자는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된다. 그러나 경종 농업이나 축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거나 생산요소에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는 일어날수도 있으나 소득 또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생산활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이나 축산업의 생산활동은 거의다 수확체감현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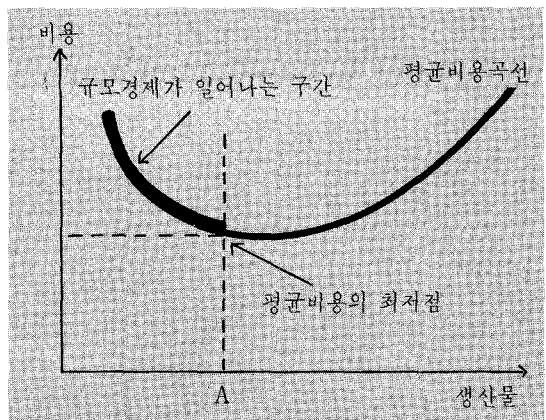
5.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확대할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 진다는 말이다. 모든 생산 활동은 생산시설등 크고 작은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투자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비용은 생산량의 대·소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성질이므로 가능하면 주어진 고정생산요소를 변동함이 없이 규모를 확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되어 결국 생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젖소를 키우는 낙농목장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만일 고정 목부 2명과 대형 트랙터 1대, 30두용 축사 1동, 30두용 착유기 1세트등 고정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젖소 10두만을 키우는 경우와 30두를 키우는 경우의 평균비용은 같을수가 없다. 즉 30두를

사육할때 가장 평균비용이 낮을 것이다. 그러나 30두를 초과하여 35두를 사육한다면 30두 사육시보다 오히려 평균비용은 증가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5두를 위하여 추가로 고정목부도 한명 더 채용하여야 할테고 축사도 한동이 더 지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효과는 무조건 규모를 확대할수록 유리한것이 아니라 어느 한도에 이르기까지는 유리해지다가 일정한 점을 넘으면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 할수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젖소나 비육우를 몇두 사육하는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 것인가를 안다면 농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다. 그러나 개별 농가의 사정이 서로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전국적이나 지역적인 평균치는 개략적으로 알수 있다. 즉 다음 그림 -1에서 평균비용은 마치 영어의 U자와 같은 형태를 띠므로 평균비용선의 최저점을 찾아내면 된다. 이러한 포물선만 주어지면 최소점을 찾는 일은 간단한 수학으로 풀수 있다. 아마도 수학으로 풀기전에 경험이 많은 목장 경영자는 이미 비용이 최소되는 점이 생산두수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다. 어찌되었건 규모의 경제는 바로 이러한 비용곡선의 성질 때문에 생긴다고 말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때문에 대규모 사육이 가능한 양계나 양돈은 소수의 기업적 축산이 독점력을 행사할 여지가 비교적 크지만 가축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

〈그림-1〉평균 비용곡선



요한 낙농이나 조사료 조달 비용이 많이드는 비육우 사육은 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려워 결국 규모의 경제성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6. 이윤과 유통마진

이윤과 마진을 혼돈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본다. 우선 정의부터 내려보자.

이윤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즉 생산비)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뺀 순전히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반면마진(Margin)은 생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의 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윤과 마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여 유통마진속에 유통종사자의 이윤은 물론 수송비 상하차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코 이윤과 마진은 같을수가 없다. 그런데 농축산물의 유통참여자가 많을수록 저마다 이윤을 남기려 하기 때문에 이윤의 규모도 커져서 결국 유통마진은 커질수 밖에 없는 점이 있다.

7. 물가지수

물가지수는 물가의 전반적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하나의 지표이다. 이세상에는 수많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격수준도 천차만별하다. 10원 짜리 편이 있는가하면 200만원짜리 경운기도 있다. 따라서 10원짜리가 15원으로 인상된 것과 200만원짜리가 210만원이 되는 가격 변동을 직접 비교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상품의 기준년도 가격을 무조건 100으로 보고 해당년도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었는가를 따져 보는데 필요한 지표가 물가지수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물가지수는 198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 기준은 매 5년마다 바뀌도록 되어있어서 내년에는 1990년 가격을 100으로 보는 새로운 물가지수를 계산해야 한다. 가격에는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이 있으므로 물가지수에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가 있고 농축

산물 판매자와 농용자재 구매자의 입장에서 본 농가 판매 가격지수와 농가구입 가격지수가 있어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들어 1989년 축산물 농가판매 가격지수가 124.8이라면 이는 1985년의 축산물 가격을 무조건 100으로 보았을 경우 1989년에는 124.8이 되어 결국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이 6년 사이에 24.8%만큼 상승하였음을 쉽게 알수 있다.

8. 경상가격과 불변가격

경상가격이란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시장가격을 말하는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화폐액으로 나타낸 가격이다. 예를들면 쌀 40kg 가격이 1985년에 31,760원이었고 1989년에는 56,253원이었다면 이 가격들은 경상가격을 의미한다. 불변가격이란 어떤 시점의 가격에서 물가변동요인을 제거한 가격이다. 앞의 예에서 1989년의 미곡에 대한 농가 판매 가격지수가 122.0이므로 1989년의 56,253원은 1985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46,109원이 된다.

(다음호 계속)

